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 5:1-3)

The Blessing of the Poor in Spirit (Matt. 5:1-3)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등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마 5:1-2).

여기 제자들이란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여 몰려든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로빈슨은 산상보훈을 일컬어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라 했고, 올스 하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사실상 산상보훈의 실체적인 주해였다”고 했으며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수 백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 천상의 선율”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By beginning a public career, Jesus visited all around the villages in Galilee, teaching, spread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curing diseases, etc. He did a wonderful work. For this work, many people admired Him and came near Him and gathered in crowds.

“Now when he saw the crowds, he went up on a mountainside and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he began to teach them, saying: (Matt. 5:1-2)” Here the word, disciples, do not refer to twelve disciples, but the people who admired Jesus and gathered in crowds near Him.

Robinson called the Sermon on the Mount “the highest peak of human morality”, and Olshausen said, “In fact, Jesus Christ’s entire life i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and lots of theologians and pastors give unstinted praise to Him. It has been said, “The crown is richly bejeweled by hundreds of gemstones heavenly melody.”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3절)라고 말씀합니다.

By beginning the Sermon on the Mount, first of all, Jesus said,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v. 3). The word, “심령(sim-ryeong)” written in Korean is spirit. In the ‘Sermon on the Mount’ known also as the Beatitudes, the reason why Jesus begins with ‘spirit’ is crucial for us. Jesus does not refer to the poor as those belonging to an indigent family or having a physical weakness, but to those who are blessed, and so He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we think from the words ‘poor in spirit’.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심령” 즉 spirit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산상보훈, 그것도 Beatitude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심령, spirit”을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집안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Here,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is similar to the Psalm confessing,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It is to express that ‘Blessed’ are those who look for God and have come to have a spirit that is in need and deeply desiring God. Here, the word “poor” is “pto-khos” in Greek, which means complete bankruptcy. Like this, God takes hold of those who are completely broken, and those who confess that they cannot live without God, and He blesses them.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배고파하고, 가난해지며, 갈급해 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Our spirit cannot be filled with anything except God’s spirit, or the Holy Spirit, and it cannot exist without it. A lot of people live an unhappy life, completely lost in the belief they must fill their spirit with worldly things, but always are left unfulfilled in constant want and need.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로 심령을 채우려 했다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It is God who made us, knows us better than I we do, loves us till His death, is the unique One who can give us the meaning of life, is the first and last, the Alpha and Omega. Jesus teaches us the truth, “Blessed are those who seek out and desire God in spirit.”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처음과 끝이 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심령이 복된 사람이라는 진리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Psalm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at the sacrifice of God is “a broken spirit”, “a poor spir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My beloved Christians!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매일 천국을 누리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Being poor in spirit before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enjoy the Kingdom of Heaven every day and will be bless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1 사명자 대회

오늘 찬양예배시 발대식 가져

교회설립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말씀,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11 사명자대회」가 10월 9일 발대식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를 주제로 10월9일(주)~11월27일(주) 50일간 진행 된다. 특별히 11월21일(월)부터 26일(토)까지 새벽 5시 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로 박노철 목사가 선다. 50일동안 계속되는 24시간 연속기도회,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와 오후10시에 열렬히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 다락방기도, 전도- 전 교인 1인1명 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문서전도 등 주님이 기뻐하실 많은 행사가 진행된다.



· 주제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신 6:4-9, 마 28:18-20)

· 행동강령

- 1) 사명자로서의 각오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
- 2) 열렬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여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앞장선다.
- 3)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에 힘쓴다.

· 조직

- 대회장 : 박노철목사
- 본부장 : 하인선장로
- 지 도 : 정수길목사
- 차 장 : 최형열집사
- 진행분과 : 이강인집사 · 홍보분과 : 서춘식집사
- 전도분과 : 원용규집사 · 기도분과 : 이희국집사
- 교육분과 : 백승갑집사 · 안내분과 : 홍일성집사
- 재정분과 : 송인수집사
- 봉사분과 : 김진환집사 오치열집사

공동 기도 제목

-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 1)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2)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닫고 다락방사역을 통해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 3)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 4)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5) 서울교회의 모든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품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 받는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1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6일(주일) / 본선 : 10월 21일(금) 오후 7시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함이 목적인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열린다. 올해의 성경암송 본문은 '로마서11-16장'이며 교육1-2국, 교육3-5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부서별 예선을 거쳐 본선을 진행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 성경으로 한다.

예선은 10월 16일(주일)에 부서별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본선은 10월 21일(금) 오후 7시 602, 603, 609호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암송대회는 3개조로 나누어서 본선 진행을 하며, 대상 3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교육1-2국- 김광신 장로, 홍성주 장로, 박진아 목사, 교육3-5국- 김대호 장로, 박두호

장로, 박광일 목사, 영어 암송- 오광환 장로, 스티븐 마티노리치 목사, 황광 목사가 각각 수고한다.

발표는 10월 23일(주) 순례자에 하며 당일 오후 찬양예배 시 시상하며 암송한다.

심사는 "암송범위 및 정확도 70%, 태도 20%, 반응 10%"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정확도(70) : 전체성경 구절을 완전히 암송(한번수정허용)하는 경우 70점, 2회 수정시부터는 1회수정시마다 1점 감점, 틀리면 2점 감점, 빼먹는 경우는 분량 따라 감점한다.

태도(20) : 자세는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아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모습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A:20점, B:15점, C:10점, D:5점, E:0점).

반응도(10)는 회중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지와 호응도에 따라 평가한다(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사명자의 기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되는 사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릇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 진리를 교회에게 주셨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사명자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할 사명, 잃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는 사명,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명, 다음 세대와 함께 가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번 사명자 대회를 통해 우리의 사명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게 하소서.



문화의 기록고화

작품의 뿌리는 하나님 신앙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차장으로 섬기는 전광영 집사는 전통 소재인 한지를 이용해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미술 작가로 2001년에는 올해의 작가상을, 2009년에는 문화예술상 미술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므로 한국 미술계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전광영 집사는 사실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더 유명하여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연방 산하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 그의 작품이 영구 전시되어 있고, 최근에 뉴욕에 있는 UN본부에도 작품이 전시 되었다.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난 전광영 집사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성경책을 가지고 시집오시므로 온 가정의 예수님을 믿어 4대에 이르게 되었고, 할머니는 고향에 교회를 세우는 등 활발한 신앙 활동을 하시며 복음화에 앞장선 분이셨다. 그러나 전광영 집사는 세월과 믿음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으며 항상 부족한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만 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할머니의 존재는 특별하다. 사업이 번성하던 가정의 2대 독자로 태어난 아들이 당연히 집안의 가업을 이어갈 것으로 알았던 전광영 집사의 부친은 그가 미술 공부를 하겠다고 하자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이니 아들의 공부를 막지 말라고 하시며 부친을 설득하셨다. 할머니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

고 말씀하셨다. 부친의 모진 반대를 무릅쓰고 떠난 미국 유학길, 더 큰 세계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떠난 길이었지만 그의 추상 미술 작품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했다. 얼마나 오래였을까! 긴 좌절과 방황의 끝에서 그는 가장 한국적인 재료인 한지로 작품을 만들며 서서히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여름 세계 3대 미술시장의 하나인 '홍콩아트 페어' 전시장 한가운데 걸린 전광영 집사의 초대형 작품이 KBS 뉴스에 긴 시간 소개 되었다. 그의 작품을 두고 미술계의 거장 후미오 난조(일본 모리미술관장)는 굉장히 규모가 큰 작품인데도 그 안에 섬세한 디테일을 담고 있다고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미 세계 미술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수 차례 전시회를 가졌고 해외 아트페어에 전시된 작품은 매년 되는 사례가 잇다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상들도 그의 작품을 소장하려고 앞다투고 있다.

미술 작가로 거의 완성에 가까운 단계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광영 집사, 그러나 그는 지금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에 겸손하고 소탈하다. 유난히 눈이 많은 고향 홍천에서 눈발을 달리며 교회에 다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며 그 때가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하는 전광영 집사, 그는 자신의 삶과 작품의 뿌리는

하나님 신앙이라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고백한다.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한지의 그 자랑스러움과 특수성에 매료되었다는 전광영 집사, 고서적의 낱장을 뜯어내 작은 삼각형 스티로폼 조각을 보자기 묶듯 싼 뒤, 한 땀 한 땀 화폭에 채워 완성되는 그의 작품에는 고서에 담긴 역사와 한지의 결이 어울려 회화적이면서도 입체감이 살아 숨 쉰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찬사를 받은 그의 작품은 호주의 한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갈수록 폭넓고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선보이는 미술작가 전광영,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의 예술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문화의 기록고화

나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 교회 대학부 소속으로 현재 미국 줄리어드 음대 2학년에 재학 중인 곽지승 자매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플룻 솔로 협연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내 맘을 감찰하시는 주님

지난 7월31일 찬양예배시 특별찬양 연주장면

오는 11월 1일, 연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서고 싶어 하는 세계 최고의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연주회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남북통일 염원을 위한 것으로 1990년 동서통일 된 독일이 지구상에 최후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의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가지는 의미 있는 음악회이다.

이에 앞서 이달 23일에는 미국 알렉산더 국제콩쿨에서 1등을 하여 카네기홀에서 수상자 연주를 한다는 곽지승 자매는 이 모두가 도무지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한다.

곽지승 자매는 지금 뉴욕 맨하탄 줄리어드 음대 부근에 있는 'Redeemer Presbyterian Church'에 다니고 있다. 유학가기 전 이종운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소개 하시며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하는 지

승 자매는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며 줄리어드 기독교 모임(JCF)에 소속 되어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봉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행여 연습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어머니 한현숙 권사에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쏟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시간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며 오히려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한다.

지난 여름 한국에 왔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긴 어머니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하며 한층 성숙해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거듭난 딸을 보며 어머니 한현숙 권사의 마음은 더없이 든든했다. 그러나 삶에도 굴곡이 있듯 신앙에도 굴곡이 있는 것을 알기에 한 권사는 딸이 음악인이 되기 이전에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쉽게 기도한다.

지승 성도의 음악성은 어머니 한현숙 권사에게 물려받은 듯 하다. 현재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인 한 권사 역시 새벽기도회 반주와 고등부 지휘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곽지승 자매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 받으며 다음세대를 이끌고 나가는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취재 허숙 권사(편집부)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23]

(문 20) “창세기 10:5, 20, 31에 의하면 인간들은 많은 언어를 갖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1에서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고 했으니 이 두 구절들은 상호 충돌이 되는 것인가요?”

(답) :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후에 종족들이 각기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이 지상에서 종족을 이루어 퍼져나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개설을 말씀한 후 창세기 저자는 중요한 사건 즉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케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창11:1-9) 이 사건은 홍수 후 짧은 세기 내에 일어난 것이어야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 자신처럼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조심스럽게 종족이 나뉘게 되었고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반역의 세상을 하나로 둘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집합주의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흠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 이전에 인간이 가졌던 언어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히브리어는 서북쪽 셈족의 후기 방언으로 아니면 가나안의 방언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어가 인간이 사용한 최초의 언어인지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부족과 씨족들이 자기들 울타리 안에서 새 언어를 분할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상호이해를 위한 것이었지 혈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한 부족 내에서 상호이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다른 언어가 개발 되었고 따라서 그들 상호 결속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10장은 야벳 자손의 흠어짐(5)과 함의 자손(20) 그리고 셈의 후손들이 족보와 흠어짐 그들의 언어를 말씀함으로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날 언어혼잡의 서론처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과 11장은 상호 충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아브라함선교회, 장년5부 야외예배

10월11일(화) / 70세 이상 성도 누구나

우리 교회 아브라함선교회(회장 : 이재운 집사) 오전 10시 정각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회비는
와 장년5부(부장:최광성 집사)가 10월 11일(화) 아 없으며 서울교회 70세 이상의 성도들은 누구나 참
카페 타운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며 박노철 목사의 석하기 바란다.
특강 시간을 갖는다.

제49회 강남노회 정기노회

11월8일(화) 서울교회에서

제49회 강남노회 정기노회가 11월8일(화) 오전 9시 우리 교회당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지난 8월 총회 목사고시
에 합격한 우리 교회 박노철 목사가 서약을 하고 우리 교단 목사로 임직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리아전도회 주최 바자

루치아노 최 / 10월10일(월)-14일(금) 롯데강남점 8층

마리아전도회(회장 박현영 권사)는 10월10일 (월)-14일(금)까지 5일간 롯데강남점 8층 행사장에서 숙녀복 브랜드 루치아노 최와 공동으로 소의
된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가 열린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 하반기 화요 정오음악회

10월 11일(화) 김은성 오르간 연주회를 시작으로



동정

미국 Westminster Choir College 대학원 석사 졸업 (MM)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대학원 박사 졸업 (DMA)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BM, MM)
독일 The 1st European Organ Academy 수료
現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겸임교수
주님의 교회 오르가니스트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일(화) 기독교대한복음교단 교역자세미나에서 특강을 한다. 13일(목) 제11회 군선교신학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다.

■ 이갑진 장로내외 대만국가조찬기도회 및 기독교인회의 참가차 출국(10/14-17)

■ 개인전 : 15교구 전광영집사 호주 시드니 conney dietzschold 화랑, 10월9일 출국

■ 수상 : 9교구 김순자 권사성동구청장 모범상

■ 주간식당 봉사 : 빌립선교회(10.9) 안드레선교회(10.16)

■ 금주의 식사 : 송동선 권사 남일환 집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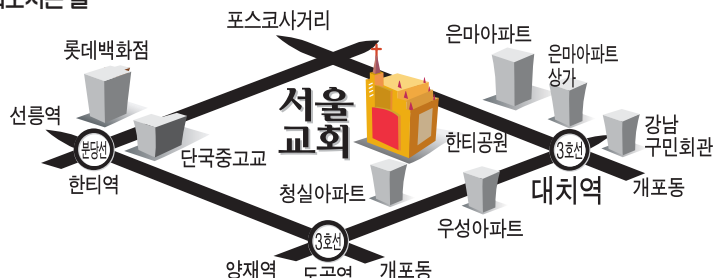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1 사명자 대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지혜가 모아지도록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 10/26 서울시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더욱 발전하는 서울시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